

# 김현미 장관, 한·인도 인프라 협력방안 논의

## - 23일, 란가나탄 신임 주한인도대사와 도로, 철도 등 의제 점검 -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23일 서울에서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(Sripriya Ranganathan) 신임 주한인도대사와 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

□ 우리 기업은 '93년 인도 최초 진출(수력발전소 건설) 이후 지금까지 총 219억\$을 수주하였으며, 양국 정상간 우호적 관계에 힘입어 뭄바이 남부해안도로\*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.

\* (수주) '18.9월 현대산업개발, (금액) 3억\$, (기간) '18.10~'22.10, (내용) 총 275km 해안도로 건설

○ 인도는 모디(Narendra Modi) 총리의 2대 핵심사업\* 추진을 위해 도로,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, 이에 우리나라도 100억\$ 규모의 인프라 분야 금융지원을 약속\*\*한 바 있다.

\* 제조업 부흥(슬로건 : Make in India), 100대 Smart City 건설

\*\* '15.5월 금융지원 약속(정상회담), '17.6월 EDCF 협정 및 EXIM간 MOU(재무장관회의)

□ 이번 면담은 이러한 인프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, 양 측은 교육훈련, ITS 등 협력 의제들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.

○ 또한, 양측은 철도, 도시개발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하였다.

□ 이날 면담에서 김현미 장관은 “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본을 가진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”라며,

○ “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인도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2019. 1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